



김민창

한국스포츠개발원
스포츠과학실 분석연구원
특수체육학 전공
장애인스포츠에 관심
mc2628@kspo.or.kr

‘진정한 올림픽의 완성, 패럴림픽’

패럴림픽의 역사

패럴림픽대회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가 주최하여 4년마다 올림픽대회가 열리는 해에 올림픽 개최국에서 열리는 국제경기대회로 척수장애, 시각장애, 절단 및 기타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를 지닌

선수들이 참가한다. 이와 같은 패럴림픽대회는 인간의 평등을 확인하는 대회임과 동시에 인간 능력의 한계를 뛰어 넘는 감격의 대축제로 일컬어진다.

패럴림픽대회는 올림픽대회와 마찬가지로 동계와 하계로 나뉘어 개최된다. 하계패럴림픽 대회의 경기종목은 가장 최근 막을 내린 2016년 리우 패럴림픽대회 기준 총 22개 경기 종목으로 양궁, 육상, 보치아, 사이클, 승마, 5인제축구, 7인제축구, 골볼, 유도, 역도, 조정, 요트, 사격, 수영, 탁구, 좌식배구, 휠체어농구, 휠체어펜싱, 휠체어러키, 휠체어테니스, 카누, 트라이애슬론 종목을 포함하고 있다. 동계패럴림픽의 경기 종목은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기준 총 6개 종목으로 장애인스키, 장애인스노보드, 장애인크로스컨트리스키, 장애인바이애슬론, 장애인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종목을 포함하고 있다.(대한장애인체육회, 2018)

하계패럴림픽대회는 영국의 루드윅 구트만 박사가 2차 세계대전 상이군인의 재활을 위해 1944년에 스톡맨드빌 병원에서 개최한 체육대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로고

가 점차 국제대회로 발전된 것이 시초가 되었으며, 제1회 하계패럴림픽대회로 인정받는 대회는 1960년 로마 패럴림픽대회이다. 동계 패럴림픽대회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상이군인들이 보철기구를 이용하여 스키



출처: paralympicheritage.org.uk

를 다시 즐기기 위한 시도가 계기가 되었다. 이후 장애인용 스키의 발전에 힘입어 제1회 동계패럴림픽대회가 1976년 스웨덴의 외른셀즈비크에서 개최되었다(한민규, 2016).

우리나라가 처음 참가한 패럴림픽대회는 제3회 텔아비브 패럴림픽대회(1968)이며, 1972년 독일에서 열린 제4회 하이델베르크 패럴림픽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처음으로 입상하였다. 당시 송신남 선수가 탁구 종목에서 획득한 금메달은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올림픽의 레슬링 종목에서 양정모 선수가 획득한 올림픽 첫 금메달 보다 4년이 앞선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수준의 경기대회 금메달이라는 데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패럴림픽 대회 때 금메달 40개, 은메달 35개, 동메달 19개를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인 7위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세계 10위권을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 막을 내린 2016년 리우 패럴림픽대회에서는 보치아 종목의 정호원 선수가 보치아 종목 8회 연속 금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달성하였으며, 수영 종목의 조기성 선수가 우리나라 최초로 패럴림픽 3관왕을 차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장애인체육 강국임을 보여준바 있다.



패럴림픽 최초의 금메달 장애인탁구 송신남 선수
출처: 조선일보



2016 리우 패럴림픽
보치아 금메달 정호원 선수
출처: 뉴시스



2016 리우 패럴림픽
장애인수영 3관왕 조기성 선수
출처: 경기일보

한편 우리나라가 처음 참가한 동계패럴림픽대회는 1992년 프랑스에서 개최한 제5회 티니-알베르빌 동계 패럴림픽대회이다. 이후 꾸준히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참가하던 우리나라 선수단은 2002년 제8회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한상민 선수가 알파인스키 종목에서 동계패럴림픽 첫 입상인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한상민 선수가 획득한 메달은 올림픽대회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설상종목에서 처음으로 획득한 메달이었다. 이후 캐나다에서 개최한 제10회 2010 밴쿠버 동계패럴림픽대회 휠체어컬링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첫 번째 단체종목 메달을 획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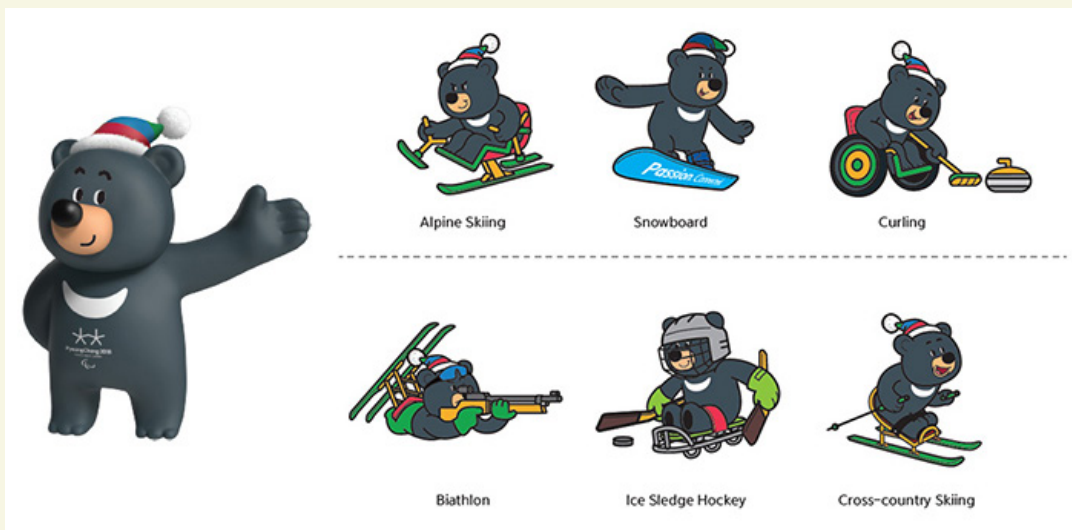
2002 솔트레이크시티 동계패럴림픽 장애인스키 은메달 한상민 선수
출처: 중부일보



2010 밴쿠버 동계패럴림픽 휠체어컬링 은메달 선수단
출처: 서울신문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알아보기

2018년 3월 9일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에서, ‘모두가 하나된 열정으로 동계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인의 공감을 연결하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동계스포츠의 지속적 확산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은 ‘Passion. Connected(하나된 열정)’라는 슬로건 아래에 세계인의 축제인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가 10일간 개최된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는 총 6개 종목에서 80개의 이벤트가 펼쳐지며, 50여 개국에서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개막식과 폐회식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에서 장애인바이애슬론과 장애인크로스컨트리스키가 개최되며, 강릉에서는 장애인아이스하키와 휠체어컬링 경기, 정선에서는 장애인알파인스키와 장애인스노보드 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다. 더불어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참가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휠체어 관람석 및 동반자석, 오디오 경기중계 서비스, 휠체어서포트 서비스, 실시간 수화통역 및 영상 해설서비스, 다양한 수송서비스 등 올림픽 기간부터 세계최고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출처: homestay korea

특히, 이번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는 1988년 서울 하계패럴림픽대회 개최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최초의 동계패럴림픽대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은 1988년 유치한 서울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전기를 맞이하여 많은 발전을 이룩해왔다. 이에 많은 이들이 30년 만에 열리는 이번 동계패럴림픽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동계 장애인스포츠 부문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길 기대하고 있다.



출처: 위키피디아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와 스포츠과학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앞두고 우리나라 대표선수단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내기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해외 우수지도자, 멘탈코치, 경기분석관, 영상분석관,



장비매니저, 아이스메이커 등 종목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 경기력의 강화를 위해 힘써오던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는 일반 올림픽 종목을 중심으로 지원해오던 ‘국가대표 현장밀착형 스포츠과학 지원’을 이번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계기로 휠체어컬링, 장애인아이스하키, 장애인스노보드, 장애인노르딕종목에 확대하였으며, 장애인국가대표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국가대표 현장밀착형 스포츠과학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목별 스포츠과학

세부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종목	세부 지원내용
휠체어컬링	국가대표 선수 개인의 샷 투구종류별 근육활성도의 특성 분석을 통한 샷 기술 강화 및 체력향상 지원
장애인아이스하키	슈팅동작의 임팩트 순간 손목 및 스틱 각도, 백스윙-임팩트-팔로우 시스템 속도 등 타입별 2차원 영상분석 제공을 통한 슈팅동작 향상 지원
장애인크로스컨트리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최상 수행의 발휘를 위한 심리적 에너지 관리 및 방해 요인 제거, 전반적인 심리적 컨디션 조절을 위한 방안 구축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 지원
장애인바이애슬론	
장애인스노보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역대 동계패럴림픽 참가 최초로 전 종목의 출전권을 획득하여 36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선수단은 2014 소치 동계패럴림픽대회 때 알파인스키 부문에서 4위를 기록했던 양재림 선수, 장애인아이스하키 종목의 세계적 스타인 정승환 선수, 2017 세계장애인노르딕스키 월드컵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이후 꾸준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여 우리나라 동계패럴림픽 대회 최초의 금메달 획득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의현 선수 등 각 종목별 주요선수들을 앞세워 대회 종합 10위의 성적을 노리고 있다.



장애인알파인스키 양재림 선수



장애인아이스하키 정승환 선수



장애인노르딕스키 신의현 선수

출처: 대한장애인체육회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초의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그동안 헌신을 다해 준비해온 국가대표팀 지도자와 선수들의 노력과 더불어 많은 지원기관과 전문 인력들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장애인국가대표 선수단의 노력과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든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모두가 뜨거운 관심과 응원을 통해 힘을 더해 주어야 할 것이다.

1988년 우리나라는 최초의 하계올림픽대회와 패럴림픽대회를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다. 30년이 지난 2018년 3월, 성공적인 동계패럴림픽대회 유치를 통해 진정한 동계올림픽의 완성을 이뤄냄으로써 우리나라 일반체육과 장애인체육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길 염원해 본다.



1988 서울 패럴림픽대회 마스코트 '곰두리'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마스코트 '반다비'

[출처: tbs]